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성경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남교회서목회서** 강간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조순근

성경연구원 3월 5일 개강 말씀을 붙드는 자는 든든합니다 주간성경공부 교사·찬양대원 양성부, 일제히 개강 충현의 성도 및 타교회 성도들도 신청가능

겨울의 긴 휴면에서 깨어 다시금 말씀을 펼쳐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다. 주간성경공부, 직분자 양육반, 제2기 교사양성부, 그리고 제2기 찬양대원 양성부가 3월 5일 일제히 개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더불어 성도의 생활에 생명과 같은 요소다. 말씀에 무지하거나 어설프게 되면 실수하고 넘어지나, 말씀 위에 걸리고 사게될 때 혼란스럽기 아니랄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 배움을 열망하면서 복음 위에 굳게 서고자 힘쓰게 된다.

충현의 성도들은 2000년도의 첫 시작을 말씀과 더불어 잘 시작하기 위해 금번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힘써 배우고 지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성경연구원의 모든 과정에는 충현의 성도들뿐 아니라 타교회 성도들도 신청하여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번 학기 공부반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강사 등은 아래와 같다.

1) 주간성경공부

과 목	시 간	강 사
누가복음 빌립보서 코린스후1서 코린스후2서 코린스후3서 시명기 열왕기상 사도행전 히브리서 말라기 코린스후3서	화, 오전10시 화, 오전7시 수, 오후12시40분 수, 오후12시40분 수, 오후12시40분 수, 오후12시40분 수, 오후12시40분 수, 오후12시40분 목, 오전11시30분 목, 오전10시	김동환 서광진 박정환 김철수 차병조 김정호 김진익 정현민 전영호 이종대 이승학 조순환

2) 직분자양육반

과 목	강 사	시 간	장 소
구약성 교육 [원사·구역장·권장] 구약성 교육 [원사·구역장] 인수집사 교육	임동택사과 교수목사 (12:30 ~ 13:30) 임동택사과 교수목사 필립보서 인수집사 교육	수요 1부 예배 후 (12:30 ~ 13:30) 수요 2부 예배 후 월요일 새벽예배 후	교구별방소 베다니 교육관 114

4) 교사양성부

- 교육기간: 3월 5일 ~ 6월 25일(17주간)
- 장 소: 교육관 301호
- 시 간: 매주 일요일 오후 3:00 ~ 4:50

날짜/시간	1교사(15:00 ~ 20:00)	강의 제목	강 사	2교사(16:00 ~ 16:50)	강의 제목	강 사
3월 5일	신약개론	김철수	신약개론	박정환	신약개론	박정환
3월 12일	구약개론	김철수	구약개론	김철수	구약개론	김철수
3월 19일	성도의 이론과 실제	이승수	주일학교 행정	사광진	사광진	사광진
3월 26일	신약개론2	김진익	신약개론2	조철수	조철수	조철수
4월 2일	신약개론2(19)	김진익	신약개론2(19)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4월 9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4월 16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4월 23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4월 30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5월 7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5월 14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5월 21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5월 28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6월 4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6월 11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6월 18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6월 25일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교과본	권성환

2000년도 여름 단기선교 일정 결정 참가대상자 전원은 LMTC 수료해야 전반기 LMTC 3월 4일 개강

2000년도 여름 단기선교 파송국과 참가인원, 그리고 일정 등이 결정되었다. 금번 여름 단기선교는 4월 11일 우즈베키스탄팀을 출발하고 해서 8월 15일 몽골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며, 총 9개국에 109명의 단원들을 파송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팀의 경우에는 주로 에바다부 자체들로 구성됨으로 동아선교를 주요 목표로 하여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단기선교 지원자들에게는 LMTC(지역선교훈련과정)의 이수가 필수조건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선교위원회에서는 금번 단기선교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들 중 미이수자들은 3월 4일(토)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전반기 LMTC에 등록하여 수강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00년도 여름 단기선교 일정 및 LMTC 훈련 일정은 아래와 같다.

여름 단기선교 일정

파송국	일정	참가인원	사면내용
우즈베키스탄	4/11-22	7명	단기선교
파키스탄	7/18-26	8명	단기선교
인도네시아	7/18-26	9명	단기선교
몽골	7/20-31	5명	단기선교
인도네시아	7/26-8/9	29명	단기선교
일본	8/1-11	15명	단기선교
러시아	8/2-22	15명	단기선교
수단	8/5-29	20명	단기선교
몽골	8/15-29	15명	단기선교

전반기 LMTC

제 11기 1학기(2000년) 3월 -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7시30분, 베다니홀

날짜	주제
3/4	1과 아브라함 카이렌
3/11	2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
3/18	3과 모든 족속을 위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3/25	신교와 언어습득
3/31	6과 문화와 복음화
4/8	9과 복음의 씨앗을 심는 방법
4/14	10과 교회를 위한 리더십
4/22	11과 교회를 위한 리더십
4/29	12과 신교와 교회, 사탄의 공격
5/6	13과 신교와 교회, 사탄의 공격
5/13	14과 신교와 교회, 사탄의 공격
5/20	15과 신교와 교회, 사탄의 공격
5/27	16과 신교와 교회, 사탄의 공격
6/3	17과 신교와 교회, 사탄의 공격
6/10	18과 신교와 교회, 사탄의 공격
6/17	19과 신교와 교회, 사탄의 공격
6/24	20과 신교와 교회, 사탄의 공격

제 11기 연회는 3-6월에 진행되며 파송국은 영어, 몽골어, 스페인어, 힌디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지는 선교단 4층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차 전도훈련원

헌신된 전도자 양성과정으로 자리매김
3월 8일 개강, 국제회의실

전도훈련원이 3월 8일에 개강하여 5월 3일까지 총 8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국제회의실이며 강사는 이흥성 목사 외 전도실습 요원들, 그리고 파목은 전도의 의미, 전도의 내용, 결실의 의미와 내용,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 전도의 실제적 문제, 그리고 전도실습 등이다. 지난 한해 동안 전도훈련원을 통해 배출된 전도자는 100여명에 달하며 헌신된 일꾼들이 요일별로 나누어져 지속적인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도훈련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신된 전도자를 양성하는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 예정이다. 전도훈련원에서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영아·유아·유치·중등3
고등·에바다부

금주에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계속된다. 21일과 22일 양일에는 영아·유아·유치부, 21일부터 23일까지는 고등부, 23일부터 25일까지는 중등3부, 그리고 25일과 26일에는 에바다부가 각각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갖는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말씀의 비말을 다수 깨닫고 복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성도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동참하여 하겠다.

한편 중등3부는 23일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고등부의 차원으로 기도원에 올라갈 예정이므로, 베다니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출발하게 된다.

감사위원회의 생간장기사업

- 대상기간: 1999년도 결산 및 2000년도 1월분 시산표
- 대상기관: 각 위원회내 산하 전부서 및 부속기관 (남녀 각 전도의 제의)
- 감사실시기간: 2월 ~ 3월중
- 감사실시장소: 시산관 404호

2000년 제1차 감사위원회의 생간장기사업									
날짜	시간	학부	장소	생간장기사업	장소	유아	유아	유아	유아
2월 20일 (주일)	12시 15:00-16:50	기독교 (영양학)	30호	기독교 (영양학)	30호	기독교 (영양학)	30호	기독교 (영양학)	30호
2월 27일 (주일)	12시 15:00-16:50	기독교 (영양학)	30호	기독교 (영양학)	30호	기독교 (영양학)	30호	기독교 (영양학)	30호



김성관 목사

사랑받는 과부

(눅 21:1-4)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난한 그 과부가 성전에 들어갈 때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 다. 그녀를 도와 주는 사람들도 거의 없 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보 셨고 그녀에게 진밀한 관심을 쏟으셨습 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를 사랑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에 대하여 아 무 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 너절로 구성된 오늘 본문은 그녀의 이름이나 나이, 외모에 대하여, 그리고 그녀에게 자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남편 을 잃은 가난한 과부였다는 사실을 알 려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 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가 믿음 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의 호의는 지나갈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위에 길이 납니다. 이 가 난한 과부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 기들의 신앙 위에 쌓아두고 있는 의식 주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에는 별 관심 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진실 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에 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이렇게 절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를 기억해야 할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이 가난한 과부는 믿음을 가지고 예 수상대 성전 뜰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예배 제사를 찾았습다. 그녀와 비슷 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 핑 계들을 가지고 언더가 다른 곳으로 머물 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입 은 옷이 너무 화려해서, 아니면 가난한 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성전에 나오는 것은 부자들에게 비해 자기들이 준비한 헌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성전에 가가 가 꺼리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 떤 사람이든 누구이든 믿음의 행위를 위해 일주일 내내 기도하라고 피문에 적혀서 예배 제소를 찾을 수 없었던지도 모릅 니다. 또 부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돈을 가져다 기부하는 것이 결여해서 성전 말고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 다. 탐욕의 환교도 너무 멀리서 한 것일지도. 혹은 예배시간이 유려한 사 업영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 르을 것입니다. 그들의 구실이 어떠한 간에 믿음으로 볼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인 가난뱅이들입 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는 믿음에 부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찍이 지갑도 성전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 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떤 할 수 있는 것도 그녀의 믿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위해 성전 을 찾았습다.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2절), 과부는 믿음으로 헌 금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것에 쓸 돈밖 에 없기 때문에 헌금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다. "나는 아니예요. 나는 돈이 필요해요!"라 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가난한 그 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습이 영 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라고 여기셨습 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가지지는 못했 지만, 그것이 작기 때문에 바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다. 그녀는 동전 두 보를 바쳤습다. 그리고 예수 님께서는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 다 많이 바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바쳤을 수도 있지만,
헌금을 하고 돌아가는 과부의 손에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드리는 믿음은 우리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해 드러납니다.**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도록 주셨습니다.**

나눔에 무언가를 바치고 싶은 그녀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 그녀의 드리는 행위가 그토록 중 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스런 과부의 마음 에는 겸손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은 연중에도 고만한 마음을 있을 수 없 었습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 절들을 보면 이렇게 되리 습니다. "진 옷을 입고 다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 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 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 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바는 관같이 되 어 중하리라 하시니라"(눅20:46-47). 서 기관들은 길게 기도함으로 겉으로 겸손 하게 보였습다. 그들은 진 옷을 입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 명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교육 받았습다. 그들이 자신들의 지위가 계몽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랑하고 가 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자신들의 이기적 인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동안 그들 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통치기 않습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서는 그들의 내면을 신명하게 들여다보 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경멸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 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이 과부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 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소 유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다. 그 날 하나님 앞에 바친 것들 중 가장 큰 헌금이었습니다. 하늘의 계산법에 따 르면 그녀의 헌금은 모든 사람들의 드려 온 것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4절). 하 나님은 우리의 의적인 능력에 따라 우리 의 헌금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다 른 사람들은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바 쳤을 수도 있지만, 헌금을 하고 돌아가 는 과부의 손에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 었습다. 드리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히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해 드러납니 다.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 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 일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실 수 있겠습 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합니다.

이것을 참으로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 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 선물은 그 과부의 헌금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헌신과는 비교될 수 없도 록 놀랍습다.

마태복음 6:11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하시는 바, 이 가난한 과부는 실로 그것을 믿고 있었습다. 동전 두 보를 그녀에게 필 요한 전부였습다. 오늘날 여가를 즐 기기 위해 해야될 수 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필요한 한가지만으 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시계·전화·컴 퓨터 등을 한가지씩만 가지고 있는 것 이 아닙니다. 기술 과잉으로 소유의 적 정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 십니다. "저희를 본받아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마 6:8). 그 가 난한 과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그대 로 믿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 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 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 오늘날은 자기의 소유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다. 그러 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 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 씀을 하는 것이니 하고 누가 봉사하려 면 하나님의 경륜을 행하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법사에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노라 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빌전 4:11).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으십시오. "나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불 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모든 소유 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떠나서 무언가 가치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 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아 름다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가난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는 궁핍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 에게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 랑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망글까지

수단단기선교

“주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박 세 은 (대학부)

8월 8일자 주간충전에 단기선교 수단단에서 의료선교를 목적으로 단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실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제가고 싶은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사역현장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기선교 지원을 작성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단기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팀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의료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는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곳에서 저의 자리를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치료 진료를 담당하신 엄필성 장로님 옆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금세 익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만나게 된 수단 사람들은 왕무하고 착박한 환경속에서도 넉넉하고 순박했습니다. 악수하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손을 흔드는 그들을 처음부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다수는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대신에 두려움의 대상인 알라함을 알고 있을뿐이었습니다.



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로 빚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기에 그 이름을 위해 저와 우리 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고 딱딱한 일정속에서도 힘을 내어 아름다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지에서 일어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이 강자의 료선교사가 되고 싶은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현신이란 자신은 흘러가는 물과 같이 사라지고 그곳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그리고 함께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작은 생각의 울타리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경험을 주님께서 세계 히라하신 것은 저를 통해 전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열정들이 변치 않고 더욱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매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히3:14). 아멘!

대학부 LMTC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곽 현 구 (대학부)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다. 대학부 수련회 첫째날 LMTC 훈련을 받고했고 전회 준비사항 또한 채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 LMTC 강의들을 들을 땐 수심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대부분이 대학부 지체들이었고 모두가 수련회 일정에서 벗어나서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전체적으로 짜임있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선교사님의 강의는 선교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선교사역도 알려주었다. 16시간의 강의를 3일간 나누어서 이뤄졌고 훈련기간 중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교회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선교의 역사를 배우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나 자신을 회개할 수 있었다.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기에 요나처럼 불순종을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순종해야 한다.

올해 단기 선교일정이 7월과 8월에 있을 예정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에 아무런 비전없이 다녀와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개월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다. 올 단기선교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함을 받고 그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인터뷰

말씀을 암송하는 기쁨
이강길 집사

“말씀 구절 구절을 묵상할수록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얼마전 오월 10시에 교회 동문에서 출발하는 교회봉고차를 타고 기도원에 가던 중이었다. 온전하신 집사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인 5장에서 7장까지를 토해내나 들리지 않고 외우게 아닌가? 놀라운 암기력이었다. 하나님께서 은혜주시는 것이 분명하였다. 여기에 고린전서 13장과 시편117 및 23편을 추가하여 암송하였다.

이강길집사님은 원래 모태신앙으로 자라 계속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도 직장 관계로 한곳에 정착하지못하고 있다가 95년부터 충헌교회에 나오게 되어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신다. 99년 4월부터 교회차를 운행,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번씩 기도문을 왕복하는 일이 중요한 직무임을 알게 되었던 지난 해 연말, 장년부 성경암송대회를 계기로 성



경암송을 시작했다고 하신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처음에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생 밑에서 착안하여 암기했고, 말씀을 늘 암송에서 보지 못하니 스스로 은혜가 되고 무엇보다도 친척이나 지인들을 만나 전도할 때 즉석에서 성경구절을 인용함으로써 효과적이었던 것을 체험하고 암송에 더욱 열심을 내었다 하신다. 또한 암송한 구절 구절을 묵상하면 한수록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하신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년보다 나을 즉 약인의 장막에 거할보다 내 하나님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84:10). 이 말씀 마음에 새겨 각자의 일에도 충성을 다하여 기쁘게 일하신다고 부인하십니다. (권석진 기자)

청년부 강남역 전도

예수그리스도의 구속과 주되심을 선포



청년 1부는 지난 12월(토) 오후 5시 강남역에서 지역복음화에 힘쓰고자 부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목사님,전도사님, 임원인들을 선두로 강남역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예수그리스도의 구속과 주되심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추위와 세속적인 모습들과 싸워가며 전도하였다. 그런데 청년1부 젊은이들의 열정에 반비례하여 받아들이는 모습들은 참으로 냉랭하였다. 과연 이땅에 복음이 들어설 수 있을까? 큰 걱정이 앞섰지만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부와 대대일 전도에 힘쓰는 청년들의 모습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전도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는 모습들을 통해 주께서 함께 하고, 주께서

주님 나라 확장의 소망을 이뤄주시리라 확신하게 되었다. 청년 1부 회원들은 2회에 걸쳐 병원전도와 강남역 전도를 하게되며, 이를 위하여 기도로 힘쓰며 준비하여야 하였다.

또한 이번 강남역 전도에서는 따뜻한 베이글리빙이 제공되어 그들의 추위를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충헌 성도들의 후원이 물질

뿐만 아니라 기도로 계속 되기를 계속 되기를 소망하며 서 몇가지 기도제목을 나누고자 한다.

1)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전도에 임할 수 있도록

2) 실제 전도했음에도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자세로 참여할 수 있도록

3) 사역이 중단에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4) 성령님 안에서 참여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사명으로 하나되어 전도에 임할 수 있도록

(최은아 기자)

“새벽 기도회에 불을 지피시다”

정운환 (집사, 6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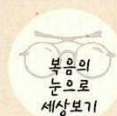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온 교회가 모여 말씀 안에 기도하는 회복의 계기로 6교구가 기도에 앞장 설시다”라는 목적으로 모인 6교구 특별새벽기도회, 원요일 첫날 새벽4시에 집을 나오니 전눈깨비가 뽀뽀스런다.

움츠러진 어깨를 더욱 움츠리게 한다. 지난 날 마음을 굳게 다지며 새벽 제단을 쌓아놓고 집을 나설 때 출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곁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온밀한 중에 계시니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내 밋대로 이해하며 발걸음을 돌렸던 지난 날의 참을성 없었던 나를 지금은 의연하게 대처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리며 봉당 문을 열어 이미 6교구 주일은 빈자극이 없었만들 봐 착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기도를 열성으로 드렸는데 죄인인 우리는 과연 공에서 오는 전신 속에서 하나님과 의 교감이 이처럼 진실되게 느껴지는 것이 새벽 제단의 의뢰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세상 신성한 중적으로 느끼게 된다. 우리에게 아쉬웠던 환란, 뜻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를 전혀 회복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려는 그 오묘하신 섭리를 당신의 종 스물마발을 통하여 “너희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내 성신으로 하리라”고 일러주셨지만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깨

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숫자상의 결과에 초조해하고 인위적인 방법론에 지나치게 호르며 때로는 성령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망발을 해 왔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해산을 앞둔 임부가 힘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힘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어찌 할꼬?” 하던 무리들처럼 지금 우리들도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서 제를 쓰고 회개하는 기도의 불길들을 지피는 기도의 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진리 앞에서 숙연히 머리숙인다. 첫째날, 둘째날 그리고 셋째날 연이어 강강하는 기운이 영하10도 이상되고 바람까지 세차게 제갈음도는 영하 15도 이상되나 날을 거듭할수록 기도의 열기가 더욱더 넘치는 믿음의 확산이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이 6교구만이 아니라 전교구 전교인에게로 확산되어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죽음까지 이긴다는 확산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리라 믿는다.

우리 모두가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요, 주님의 진리도 하나요 고백하며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중현은 불기둥이 서는 교회가 될 것이고, 회개의 눈물이 넘치는 확산을, 믿음이 실천되는 교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온성도가 혼연일치가 되어 새벽기도회에 불을 지피시다.



가상세계는 불법의 천국(?)

◇ 불법 사이버 유세 극성

...요즘 고등학교 동문회 사...요즘 사이버 유세는 출마 예상 선배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글들이 자주

든다. 출마 후보들 선거사무실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 홍보물을 보내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거운들은 현실 세계에서보다 사이버 세계에서 더 많이 자행되지만, 적발 적수는 사이버가 현실의 0.6%에 머물고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조선일보 2월 14일자)

◇ 클린턴도 해킹당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 세계 네티즌을 상대로 인터넷 인터뷰를 하는 도중 해킹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다.

이번 소동은 해커가 클린턴의 이름을 빌려 영장환 담판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벌어졌다. (조선일보 2월 16일)

수개월간 한 대형교회 교역자가 이단사비에 시달렸는바, 이단인종,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그 교역자의 설교를 누군가가 교묘히 바꾸어 이단사비에 휘말리게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가상세계는 마치 ‘의명’의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시비할 사람은 없었지만 또 하나의 범죄공간으로 바뀌어가는 사이버세계가 사단의 교묘한 전술을 더욱 은밀하게 포장해 주는 발포장이 되는 듯하여 두렵다. 이미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사이버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에 헌신할 일꾼들이 너무 절실하다.

(백주영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응호♥배복동’ 부부를 소개합니다



술하에 7남매를 두시고 그 중에 막내들이 미국 LA에 있는 교회에서 지휘자로 봉사하십니다. 막내아들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여러모로 마음을 찢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부모님을 부탁하셨는데 심방오는 것도 거절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 산책나가셨다가 유호선(외선부 부장)권사님의 권도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어느날 넘어지셔서 걷지 못하시게 되어 4, 5개월 집에만 계시게 되었는데 유 권사님은 수유리 할아버님에게 자주 심방하시고 심방오셔서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좋은 말로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한 후에 마음이 열리셨답니다.

주일이면 수유리까지 가서 교회에 모시고 새가족부 끝날 때쯤이면 또 달려와서 할아버님 내외분을 모셔가는 유 권사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잘 걸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유 권사님에 대한 자랑을 하시며 아들의 부탁도 거절했는데 유 권사님때문에 새가족부에 나와 기쁘고 또 말씀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셨습니다.

한숙정(새가족부 통신원)

교회 안내 5

충현의 새가족들을 위해 ‘충현기도원’을 소개합니다



충현기도원을 향해 떠나는 날이면 마치 주님과의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과 같이 설레이며 코밑으로 풀냄새가 배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기도원이 세상과 떨어져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개편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산 한가운데에 자리한 기도원은 서울을 벗어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맑은 공기를 맛볼 수 있으며 산 곳곳에 기도처소는 물론 기도산로가 있어 순간순간 자연 속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속식은 물론 식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현재 속소인 다니엘관(남성도)과 에스더관(여성도)이 오는 5월이면 병남방 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공간으로 성도들을 기다리게 된다. 봄바람이 부는 그곳으로 주님을 만나러 떠나보자.

기도원 가는 방법

출발장소가 교회일 때 : ‘교육관’ 경비실앞에서 봉고차 출발하며,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는 하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는 봉당 앞마당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강변역 테크노마트에서 좌석 1113-1번을 타고 광주초 초월면 사무소앞에서 하차하면 된다. 기도원 문의 전화는 0347-766-5425

차량 운행시간표

요일	교회 출발	기도원 출발	집회
월	오전10:00 오후7:00	오후3:00	저녁예배(20시)
화	오전10:00 오후7:00	오전6:00 오후2:30	새벽예배(5시) 낮집회(11시) / 저녁예배(20시)
수	오전10:00 오후8:00	오후6:00 오후3:00	새벽예배(5시) / 저녁예배(20시)
목	오전10:00 오후7:00	오전6:00 오후3:00	새벽예배(5시) / 저녁예배(20시)
금	오전10:00 오후9:00	오전6:00 오후3:00	새벽예배(5시) / 금요일아침집회(22시30분)
토	오전10:00	오전12:30 오전 5:00	

내가 만난 예수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오 미 정(청년1부 74등기)

하나님께서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며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권능을, 사랑의 손길을 보게 하신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랑의 품에 안긴 백성들은 흥행을 앞에 두고 그들을 쫓는 바로와 말과 병거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과 늘 함께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질러대는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통곡의 부르짖음 속에서라도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 14:13,14).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멋진 그분의 방법으로 흥행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또 그렇게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이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앞에 떠나지 않는데도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끌어안으신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흥행 앞에서 두려워하며, 또 때론 좌절과 실망 속에서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 왔느냐며 원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거만 하면 된다."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한번 되돌아본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내 영 깊은 곳에 하늘의 소망을 심어놓으시고, 그 소망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하기만 하다. 탈락과 같이 방황하던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사울과 같은 나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만나주시며, 달 옮기길 세 번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같은 이 죄인에게도 성령을 부으사 새롭게 해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새벽을 보았다. 이제 그분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이 죄인도 그분을 만났으니, 나도 그분의 자녀가 되어 내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려 한다.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그곳이 땅끝일지라도!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현교회 교회학교 중등1부에서 섬기고있는 김단용 장로입니다. 저는 한 중학교에서 복직하면서 교회의 미래이며 가정의 미래요, 국가의 미래인 중등부 학생들이 속해 있는 학교생활을 살펴보면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으로 교육시킨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주요 생활 공간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 발달과 정서는 학교생활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저희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믿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생활한다면 비신앙적인 사고를 갖는 것을 자명한 결과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환경적 위기를 절감하면서 학부모님께 간곡한 편지를 드립니다. 분명히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공진과 신앙의 공동체 문화가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어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배워가는 과정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환경은 자녀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학교의 신앙교육은 우리 자녀들을 비신앙적인 위험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현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부모님의 자녀들 중에 중등1부에 해당하는 학생의 숫자는 남자122명, 여자131명으로서 총253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등1부에 등록한 학생은 남자76명, 여자80명으로서 총156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40%에 해당하는 97명의 학생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중등부 학부모님들이 기독교 신앙의 환경을 교회에서부터 만들어가는 범교회적 차원의 '청소년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형성 하려고 합니다.

중현교회에 등록된 각 가정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웃들을 살펴보아서 중등부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중현교회 중등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모든 가정에 중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2월

김단용 장로 올림

잃은 양을 찾아

이 정 진 (중등3부 교사)

교회학교 심방

우리 반에는 작년부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가 둘 있다. 이른바 '실기 결석생'. 새해 새로운 반을 맡으면서 작년도 출석상황이 '0'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본 후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더 많은 기도과 권면으로 교회에 나오게 해야지'라는 말을 굳게 먹었다.

그런데 중 전화통화만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던 한 친구와의 연락이 끊겼다. "결번입니다"라는 전화국 안내멘트를 듣고 그냥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잃은 양을 찾는 자가 되려고 주 소만을 들고 그 전화를 찾아나선다. 전화통화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믿지 않는 집안, 친구 따라 몇 번 나왔던 교회 등... "하나님, 중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만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고 교회에 나오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약간의 떨림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찾아간 아파트 현관에서 경비 보시는 분의 말씀 "그 집 며칠 전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몇 년간 오지 않을 거요." "..."

나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가버린 친구가 아주 허탈한 생각이 들기 전, 좀 더 일찍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하심을 전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림 / 장선아

서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부디 면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줄 아는 준성이 되기를 잠시 기도한 후 다른 장기 결석생한테도 걸음을 옮겼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잃어버린 바가 되는데 그에게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마리를 틀어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4,7).

기어이 그를 찾아서 즐거이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5과 2반 심방일기

김 정 민(중등부 교사)

"용이여 잘 지냈니?" "네" "전생담이 심방할까 하는데 용이 집에 가도 괜찮을까?" "싫어요" "에-에?" 그러면 밖에 서 떠돌아다니면서 전생담하고 얘기하면서 놀자. "싫어요, 안 나가요." 용이는 첫만남에서부터 나의 눈길을 끌었다. 반 아이들이 활발하게 웃으며 얘기하고 장난치고 하는데도 용이는 끼어들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농담을 해도 웃지 않고 청한을 해도 무표정이었다. 하얀 피부에 한쪽 눈만 생개풀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생개풀이 아니라 상처였다. 어떻게 난 상처일까? 나는 속으로 궁금했지만 용이에게

물지는 못했다. 나는 기도수첩을 아이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첫날부터 기도제목을 나누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수첩을 했다. 용이는 '아버가 술을 조금만 드시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가슴 한쪽이 저미어는 통증을 느꼈다. 그래서 용이를 첫번째로 심방하고 싶었다. 그런데 용이에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것이다. '실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요. 코가 석자'는 뼈저린 용이한테 용이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용이는 딱딱이 집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이는 부모님께서 공부 때문에 일본에 계류중이어서 외삼촌댁에서 살고 있다. 구김살 없고 건장해 보였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신명나게 쏟아놓는 영이에게 나는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성경에 얼마나 읽었니?" "한 읽어요." "예수님은 영이에게 어떤 분이요?" "그냥 훌륭한 분이지 않아요." "그러면 측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지?" "죽기 전에 착하게 살았는지 따져보면 알 것 같아요." 나는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영이를 바라보았다. 영이와 헤어져도 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저렴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려고 믿게 할까? 그사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반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계획표를 세웠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게 세워야겠다. 10개월 후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소망을 품고 더 멀어부터 행복함이 가슴까지 밀려온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겨울성경학교-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

2000년 영아부 겨울 성경학교가 21일(월)과 22일(화) 이틀간 신교관 103호 영아부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 으로 마가복음 6장 4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사로는 한영준 영아부 전도사님이야 학부도 특강으로는 정감신 목사님입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있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란 제목의 인형극이 있습니다. 또한 빠질 수 없는 놀이와 예쁜 바구니를 만드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겨울성경학교-예수님을 바라보자

유아부는 21일과 22일 이틀간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언제나 깨어있는 크리스천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시간들을 했습니다. 김경자 전도사님의 말씀, 강림구 집사님의 어머니 특강, 성경이야기, 율동, 찬양, 인형극, 줄거늘 놀이, 남방 간식예배 멋진 선물까지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며, 아무리 많이 준비한 잔치라도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쓸쓸할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혼자서는 못어요. 어머니들! 꼭 우리 어린이들과, 이웃의 어린이들과 친목잔치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김미은 통신원)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학부모님 특강도

말씀먹고 자라는 하늘나라 어린이들이랍니다. 정연희 전도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릴 때에는 전도사님의 재미있는 설교에 한눈파는 어린이가 없어요. 예쁜 강연에서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율동과 찬송시간에는 모두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 찬양도 드립니다.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겨울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이야기, 찬송, 놀이, 인형극, 간식, 만들기, 학부모님 특강 등이 있습니다. 또 성경학교 행사 등에는 시간날이도 있습니다. 부모님! 유치부로 모두 모두 보내주세요. (김영미 통신원)

유년부

총동원주일

다음 주일은 유년부 '총동원 주일' 이예요.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전하나 전으로 소식을 전해보아요.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준비해요. 이 날은 반별 친교회도 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과 따뜻한 에기를 나누며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요. (정지훈 통신원)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디더 다음주 28일 부터 시작한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특별히 기대되는 것은 분반 성경공부인 꿈의 시간이다. 두 눈을 가린 채 장애물을 넘고, 즐겁게 찬양을 부르고 또 간식을 먹으며 진행될 꿈의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져 지루해 할 어린이는 결코 없을 것이다. (성향록 통신원)

중등3부

겨울수련회

겨울수련회가 오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내가 누려야 할 구원'이란 주제로 구원이전의 모습과 구원이후의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제 성구로 고전후서 6장 2절, 주제찬송은 210장입니다. 그리고 강사님은 권상현 목사님입니다. 수련회를 위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준비와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겨울수련회에 많은 중등3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옥 통신원)

고등부

학부모모임 기도회도 가져

2월 21일(월)-23일(수)에 충현 기도원에서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 기간 중 둘째날인 22일 화요일에는 부흥의 시간이 이어 고등부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함께 참석하는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학부모님들은 꼭 참여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월 22일(화) 저녁 7시-8시

장소: 충현기도원

교편관: 2월 22일 저녁 6시에

본당 앞마당에서 버스로 출발

3교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자'

2월 구역연합예배가 11일 10시 배다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준경 목사님의 왕상 3:4-14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공식예배를 사모하고, 철저하게 의지하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깨끗한 일꾼으로 겸손한 그릇을 준비하고, 또한 오직 '주님의 은혜' 일나라고 고백하는 교구가 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각 지역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 4지역이 100% 참석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모여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강로님의 말씀과 3월달 연합예배 때에는 서로 권면하여 100%로 참석하기를 바란다. 금번 교구협의회에는 요한전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구안의 30대 남성도들을 초청했다. (백미경 통신원)

외선부

하나님의 역사

지난 주일 외선부에서는 사코로 목숨을 잃은 우즈베키스탄인을 위해 교사와 외국인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우즈베키스탄인들 사나를 몰로 잘못 알고 마서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나라 관습상 시신을 본국으로 수송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외선부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우리교회에 참석하고 등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졌다. (안소영 통신원)

충현 지상교회학교
(紙上敎會學校)

창간 30주년

Q 다년간 직장을 사직하고 다시금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지네요. 되어질듯 하다 인지도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는 어렵겠네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A 그때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때는 이러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나의 인생감의 기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히 훈련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목적 속에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기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더불어 열심히 하라는 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이런 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의 성격은 어떤지, 어떤 일을 수행하면 어떤 훈련이 요구되고 어디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지, 또한 개인적 자격이 요구되며 근무조건과 보수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와 장래에 어떤 가능성이 있고 나의 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 직업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원과 어떻게 조화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이 직업에 소신을 정직하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것이 나의 삶을 향상시키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 모든 것이 맞추어지지 않는 수 있겠지요 열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요셉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그는 노예라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만민을 준비시키시고자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그 일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그 꿈이 이루어질 일을 갖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믿음을 얻어내며 다짐은 "하나님의 다름을 발견하는 일인데 주께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상도실

- ◆2교구 노령회 성도(청담2교구) 신부전 중으로 특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완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교구 이삼수 성도(청담5교구)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 중에 있습니다. 깨끗이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교구 이삼수 집사(청담4교구) 위 수술 후 지금까지 1년 정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완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은동장

제1교구 전국 전지 지역연합모임



1교구에서는 '예수의 증인되어 사는 교구'라는 표어를 갖고 지난 10월(금) 연합지역모임으로 전교구 식구와 새신자를 초청하여 열었다. 교회 제도 일기개은 교구지민 이번에는 지역 주님의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와서 지역의 단합된 모습이 역력했다. 200명의 예장인원을 넘어 311명의 모이자 등 황철민 준비위원들이 기도하여 200명분으로 준비된 것을 300명여 먹을 수 있는 오병이역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천국천지가 아니겠는가! 모두를 비린 진행 속에서기도했다. 각 지역들의 간증, 찬양, 부부미종, 수화, 어린이들의 찬양, 가족에서 탈락미종, 수화 등으로 어떻게 시간이 지났지도 몰랐다. 회회를 위하여, 자신의 신안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가지고 온 온기제복들을 나누며 합심기도로 열기는 뜨거워졌다. (임동경 통신원)

